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에 대한 고찰

허지운

To cite this article : 허지운 (2016)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에 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8:2, 153-187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통역과 번역, 18(2), 2016

언론보도에 투영된 동시통역에 대한 고찰

허 지 윤

(이화여자대학교)

Huh, Jiun. (2016). Study o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s portrayed in news media.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8(2), 153-187.

This study explores the way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portrayed in Korean news medi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 complex task requiring an interpreter to master the skills of listening, production, and memory skills which need to be operated simultaneously facilitated by the right coordination skills(Gile, 2009). Thus it requires expertise, and interpreters who are well trained and, consequently, competent in both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are called 'conference interpreters.' Conference interpreters are covered frequently in newspaper articles and are often called 'simultaneous interpreters' in Korean media. Conference interpreters are recognized as experts in the field. However recently, the word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ers' are often used inappropriately: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used to describe a celebrity's language competency; 'simultaneous interpreter' is often used to add glamour to a celebrity's career profile or lifestyl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lso often used in names for language services provided for the general public, which requires consecutive interpretation at best.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edia uses and tweaks the concept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nd discusses implications of such misuse.

Keywords: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dia, perception, newspaper, conference interpreter, interpreter

I. 들어가는 말

국제회의 통역사가 수행하는 주요 통역 유형인 동시통역은 고도의 집중력과

정보처리 및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통역 유형 중 동시통역은 시간 제약 하에서 듣기, 기억, 분석, 발화 등 통역 과정을 순발력 있게 처리해야한다는 점에서 가장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통역 유형이다(이정순, 2016; 질(Gile), 2009: 168; 리(Lee), 2016). 전문적인 수준의 동시통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듣기, 이해, 발화 과정의 숙련도가 높아야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스킬이 요구된다. 청성시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역사는 적절한 텍스트 분절전략(segmentation strategy)과 ST의 통사적 구성을 TT에서 변형하여 발화하는 전환전략(conversion strategy)을 사용하기도 하고(이소희, 2014), ST 속도에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명시화보다는 함축 전략을 택하고 전략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해 분석의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접속어를 추가하기도 한다(리, 2014). 또한 통역 과정 및 텍스트 차원의 노력 뿐 아니라 청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동시통역의 억양, 휴지, 모음길이 등 동시통역 운율까지 고려해야 한다(최은아, 2014).

이처럼 단순한 언어적 능력을 넘어서는 통역 능력을 요구하는 동시통역은 2차 대전 이후 UN에서 본격 도입하게 되었고, 언론은 당시부터 관심을 갖고 동시통역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첫 도입 시기였던 당시에는 통역 정확도에 대한 주변의 우려와 시간 절감이라는 편익에 관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1946. 08. 10, 1946. 10. 20). 국내에서도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동시통역능력을 지닌 국제회의통역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동시통역 및 동시통역사는 국내 언론보도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보도 내용은 ASEM 등 국제행사에서 중요한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한국경제, 2000. 10. 17), 대학생 희망직업(머니투데이, 2002. 02. 04), 동시통역사 인터뷰(세계일보, 2007. 04. 16), 기업체의 동시통역사 활용(동아일보, 2007. 11. 28) 등으로 다양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동시통역사의 미래 직업 전망(한국경제, 2016. 03. 14)을 비롯한 새로운 이슈 등장에 따라 매체가 동시통역을 다루는 시각에 변화가 보이기도 하였고 유명인이 동시통역사로 매체에서 부각되는 현상도 관찰된다(스포츠서울, 2015. 06. 05).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회의통역사와 이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차도 관찰된다. 국제회의통역사¹⁾로 동시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언어 감각,

1) 국제회의에서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통역사를 지칭하는 정

고도의 집중력, 기억력,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한 직업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²⁾³⁾ 다시 말하면, 동시통역에 요구되는 강도 높은 교육과 실무 능력, 투입되는 업무의 중요성과 자격요건 등 동시통역을 실제로 수행하는 통역사들이 갖는 동시통역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언론 및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동시통역 및 국제회의통역사에 대한 시선은 본질에서 벗어나 주변적인 화제에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언론 보도는 시대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보 선택 및 누락을 통하여 현실을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다시 언론 보도를 통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대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구성하거나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손승혜, 황하성, 장운재, 2011 참조). 이에 본고에서는 전문성을 요하고 국제회의의 무대에서 소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시통역 및 이를 수행하는 동시통역사가 언론보도에서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동시통역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이것이 수용자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통역사의 직업인식

동시통역과 국제회의통역사에 관한 외부의 시선을 다루기에 앞서 본 절에

사용어는 ‘국제회의통역사(conference interpreter)’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시통역사’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 본고에서 분석 시 언론기사에서 사용하는 일반 용례도 포함하기 때문에 ‘동시통역사’를 ‘국제회의통역사’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 2) “스페인어 동시통역사로 9년 경력을 쌓은 성초림(34)씨는 “동시통역사가 걸으론 하려하고 편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항상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2000. 10. 29)
- 3) “한국어와 영어 등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말하는 사람, 유명 외국 인사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자주 해외에 갈 기회가 있는 사람... ‘동시통역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다. 언뜻 떠오르는 이 같은 화려함으로 인해 동시통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다.” (매일경제, 2010. 01. 14)

서는 우선 통역사들 스스로 바라보는 직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는 국제회의통역사들이 바라보는 직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직업의 위상을 이해하여 언론보도에 투영된 직업 및 업무에 대한 시각이 이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국제회의통역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대대적인 조사인 국제회의통역사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Interpreters)의 연구(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 2002)는 전세계 국제회의통역사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업무 스트레스, 부스 조건, 통역수행, 스트레스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만족도, 직업 위상에 대한 설문 결과가 담겨 있다. 국제회의통역사들은 통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심리적·생리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회의 통역사 스스로 자신의 통역 수행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자가평가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국제회의통역사협회, 2002: 127). 업무 스트레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이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중 절반에 불과했고(국제회의통역사협회, 2002: 127), 직업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8%에 달하는 등(국제회의통역사협회, 2002: 131) 통역사 입장에서 많은 노력이 투입되지만 예전만큼 전망 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카탄(Katan, 2009)의 연구에서는 통역사의 직업위상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참여집단 전반에 걸쳐서 위상이 ‘높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응답자들은 통역사가 지닌 위상은 컨설턴트나 교사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카탄, 2009: 198-199). 그러나 해당 조사는 앞서 언급된 국제회의통역사협회(2002)의 조사와 달리 국제회의통역사 대상이 아닌, 통역사, 번역사, 교수,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조사여서 응답 결과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세튼과 리양리양(Setton & Liangliang, 2009)은 조사대상을 중화권 통번역사로 제한하였는데, 중화권 통역사들은 직업 위상이 높은 편으로, 통역사가 변호사나 경영컨설턴트와 같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튼과 리양리양, 2009: 225). 반면 외부의 시선에 대한 불편함도 언급되었다.

통역사라는 직업을 잘 아는 사람들은 통역사의 지위를 높게 평가해주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통역사가 고소득 직종이라고 단정 짓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통역사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등 통역사에 대한 직업 이해도에 따라 통역사라는 직업에 대한 외부의 인식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세튼과 리앙리앙, 2009: 226).

물론, 통역사들의 직무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쿠퍼, 데이비스와 텅(Cooper, Davies, & Tung), 1982; 세튼과 리앙리앙, 2009).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외에 구체적인 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도 실시되었다. 츠비센베르거(Zwischenberger, 2009: 250)의 국제회의통역사협회 통역사 대상 조사에서 통역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촉진자(facilitator/enabler) 또는 도움을 주는 존재로 설명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통의 ‘도구’로 간주하거나 ‘불가시성’을 당연시하는 점도 관찰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른 연구에서는 통역사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슨스(Parsons, 1978: 317) 연구에서는 행위자(agent)보다는 도관(conduit)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불만으로 언급되었고, 쿠퍼 외 2명(Cooper et al., 1982) 연구에서도 대변인 같다고 느껴지거나 기계 취급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뢰히하커(Pöchhacker, 2009: 181)는 이를 동시통역의 등장과 연계하여 해석하고 있다. 뢰히하커(2009: 181)에 따르면, 동시통역의 등장으로 통역사들이 회의 참가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소통을 하던 순차통역 방식에서 벗어나 회의참가자들과 동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부스에서 통역장비를 통해 동시통역을 실시하면서 통역사들의 주체적 역할 및 중요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안젤렐리(Angelelli, 2004)의 북미지역 국제회의통역사 대상 조사에서도 통역사들은 자신의 가시성, 소통 효과, 문화 및 언어 장벽 설명 역할 등 통역사의 존재감과 주체적 역할이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시성 면에서는 의료통역사만도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동시통역이 통역사의 가시성이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린다는 점은 츠비센베르거(2009)의 조사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제회의통역사 중 순차통역을 더 많이 하는 응답자일수록 자신의 역할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동시통역을 더 많이 할수록 인식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시성과 더불어 통역에 투입되는 노력이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었다(카탄, 2009). 통역사들은 전문 통역 능력, 전문분야 주제지식을 갖춰야하고 통역 수행 사전에 많은 자료를 읽고 조사하고, 어휘 및 문법을 체크하고 해당 주제에 관한 전문가가 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면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도 통역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 불만으로 제기되었다(카탄, 2009: 193).

이처럼 통역사가 체감하는 외부 혹은 일반인의 시각은 통역사가 인식하고 있는 직업의 본질 및 현실과 차이를 보인다. 통역사들은 회의에서 통역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데, 정작 외부의 시선은 단순히 언어능력만 있으면 수행 가능한 작업으로 폄하하거나 고소득의 화려한 직업으로만 인식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대중의 인식으로 인해 고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동시통역 유형은 통역사의 가시성 및 주체적인 기능을 약화시켜 이러한 시각차를 더욱 넓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국내에서도 전문가인 실무통역사들과 비전문가인 일반인 간의 직업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제회의통역사들의 업무 만족도, 직업 위상, 근로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통역 유형 중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통역에 대한 인식, 특히 언론에 투영된 인식을 조사하여 통역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시선과 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4) 대중매체에서는 통역사들이 토로하는 가시성 부재 및 다양한 업무 고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역사(interpreter)’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검색결과 상단에 등장하는 것이 니콜키드만(Nicole Kidman)이 주연으로 열린 ‘The Interpreter’라는 영화이다(카탄, 2009). 이 영화에서 니콜 키드만은 유엔 국제회의통역사로 분하여 동시통역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영화 속에서 통역사의 위상이 높게 평가되는 점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카탄, 2009: 200), 주요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화려한 모습만 부각되고 가시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연구에서 토로된 가시성 부재 및 현실과 동떨어진 대중의 인식 등 실제 통역사들의 불만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 언론 보도 특성

실제 통역사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을 파악하는데 있어 언론보도를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다. 일반의 인식이 하나의 사회적 현실이라면 언론은 사회구성원의 현실, 관심사 및 인식을 반영하여 기사화하고, 이는 다시 현실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특정 사안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이용훈, 2006; 김은주와 박정배, 2010).

다만, 언론보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사를 작성하는 주체는 기계가 아닌 기자 혹은 언론인으로, 이들의 주관적 의식 속에서 현실이 재구성되어 기사로 나오게 된다(김은주와 박정배, 2010: 92). 이러한 현실 재구성은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 틀로 규정되는 ‘프레임(frame)’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프만(Goffman), 1974: 21). 엔트만(Entman, 1993)에 따르면 매체는 정보를 취사선택 혹은 배제하는 프레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인지된 현실과 정보 중에서 매체는 취사선택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수신자에게 더 눈에 띄고, 의미 있으며, 기억되도록 하는 효과를 위해 일부 요소는 현저하게 부각하여 정의, 해석, 평가를 진행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누락되는 정보를 통해 프레임을 드러내기도 한다(엔트만, 1993: 53-54).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재구성한 현실은 특정 사안이나 대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략적으로 유리한 프레임을 이용하는 경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현실이 왜곡되어 재구성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신문보도에서 여성 기사는 이슈나 특집 기사보다는 단순한 사건성 보도기사 중심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언론에서 집중조명하는 여성은 전문성이 부각되기보다는 여성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성은 중요한 인물의 가족의 자격으로 또는 성공한 여성을 기술한 기사라 하더라도 ‘수도꼭지’, ‘울보장관’, ‘미모의 장관’, ‘억순이’ 등으로 지칭하는 편집이 눈에 띄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4, 허명숙, 2007에서 인용; 강미은, 2003).

언론은 현실의 요소 중에서 취사선택하고, 일부를 부각시키거나 누락시킴으로써 수용자가 현실을 이해 및 해석하는 범위를 제한하여 수용자의 가치 판

단에 영향을 준다(임양준, 2013: 255). 또한 수용자는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거나 인식한 현실이 아닌 언론 매체에 의해 형성된 상징적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김은주와 박정배 2010: 92). 물론, 매체에서 정한 프레임은 특정한 스키마(schema)를 지닌 수신자에 의해 무조건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수신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엔트만, 1993: 53-54). 보도가 왜곡된 프레임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대상에 대한 수용자의 가치관 정립, 고정관념 강화, 지위 약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허명숙, 2007: 15).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프레임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진보 혹은 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강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손영준, 2004).

따라서 수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보도의 이슈 취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는 언론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동시통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동시통역’이라는 직무, 혹은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을 언론에서 보도함에 있어 현장의 실무 통역사들이 체험하고 있는 현실이나 앞서 II.1절에서 확인한 통역사들의 고충과는 거리가 먼 화려한 겉모습만을 다루고 있거나 직업의 전문성을 왜곡하는 맥락에서 동시통역 혹은 동시통역사가 기술된다면 이는 수용자가 해당 직무 혹은 직업에 대하여 갖게 되는 인식 및 직업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통역’이 언급되는 국내 언론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에서 어떠한 맥락과 의미로 ‘동시통역’을 투영하고 사회의 인식을 반영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III. 국내 언론보도 분석

1.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의 국내 언론사 기사 중 동시통역을 다룬 기사를 분석하였다.⁵⁾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의 뉴스 섹션의 1,070개 매체에

5) 2000년 이전 기사는 연합뉴스만 검색되어 2000년 이후 기사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실린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⁶⁾ 기사 중 조사 및 분석 범위는 제목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기사 제목이 해당 언론사나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고(이용훈, 2006: 284; 최수진, 2014: 516), 제목에 동시통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해당 기사에서 동시통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나 기사의 내용 전달에 있어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동시통역’⁷⁾을 검색어로 조회한 결과 총 519개 기사가 검색되었다.⁸⁾

본고에서는 우선 519개 기사의 빈도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단어 간 관계를 바탕으로 메시지의 핵심 아이디어를 조사하는 방법인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본 동시통역에 대한 인식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해당 기사 제목 및 본문의 텍스트 속에서 ‘동시통역’이 사용된 맥락과 관점을 분석한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사회 네트워크 알고리즘 기반의 전문 분석 소프트웨어인 ‘KrKwic’와 ‘Pajek’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KrKwic’ 프로그램은 수집된 텍스트 모음 속에서 단어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주요 의미 개념별 분류를 구현해주는 도구로,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조명하는 데 유용하다(박한우와 레이데스트로프(Leydesdroff), 2004; 이용훈, 2006; 블리거와 레이데스트로프(Vlieger & Leydesdroff), 2011). ‘KrKwic’를 통해 얻은 빈도분석 결과는 ‘Paje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식화할 수 있으며, 기사 제목에 사용된 어휘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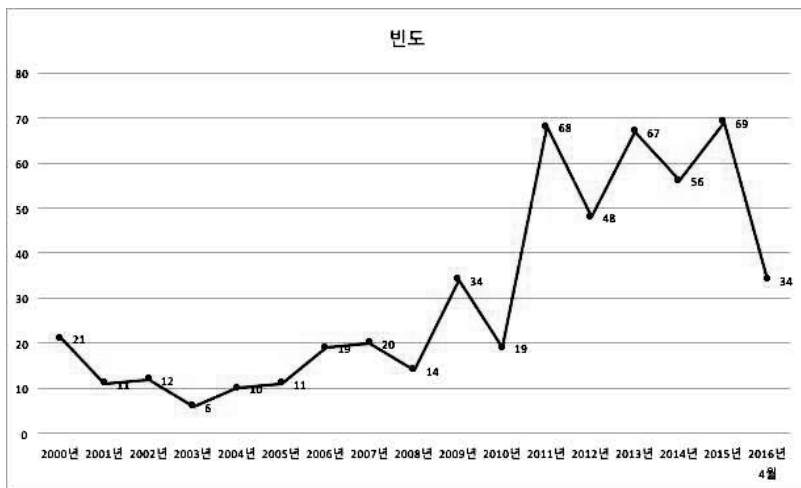
1) 보도 추이

6) 기사 종류의 구분 없이 모든 유형의 기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동시통역’을 다루거나 언급한 기사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시각과 맥락에서 다루어지는지, 시기별 변화 추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7) 또는 ‘동시 통역’

8) 기사 내용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보도한 언론매체가 다르면 조사 자료에 포함시켰다. 기사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상이한 매체에서 보도되었다는 것은 각 언론 매체에서 해당 기사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게이트키퍼 과정을 거쳐 기사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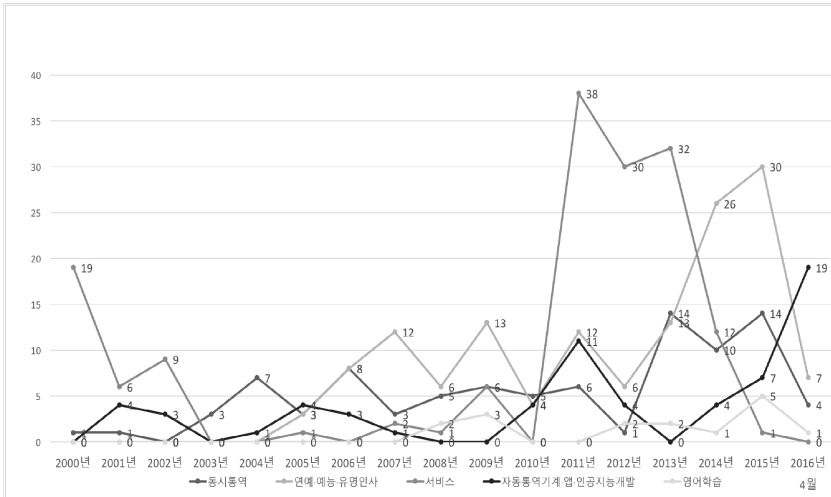
2000년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의 ‘동시통역’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 의 빈도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던 기사 빈도가 2009년에 일시적으로 2000-2008년 평균 대비 2.5배 가량 증가하였다가 다시 떨어진 이후 2011년에 68건으로 다시 급증한 이후 꾸준히 48-69건 사이를 유지하였다.



<그림 1> ‘동시통역’이 포함된 기사 제목 빈도 추이

이를 다시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동시통역, 연예·예능·유명인사, 공공서비스, 자동통역 기계·앱·인공지능 개발, 영어학습, 기타의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동시통역’은 동시통역 실무, 동시통역사 직업 탐구, 동시통역에 대한 소개, 동시통역 지망생 인터뷰, 생방송 중계,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소식 등 ‘동시통역’을 본연의 의미 그대로 다룬 기사를 가리키고, ‘연예·예능·유명인사’는 연예인 배우자 및 친척으로서의 동시통역사, 방송출연으로 유명인사가 된 동시통역사, 연예인 및 유명인사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 동시통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연예인 및 유명인사를 다룬 기사가 해당된다. ‘서비스’는 방송국, 택시, 공공기관의 통역서비스 시행을 다룬 기사를 가리키고, ‘자동통역 기계·앱·인공지능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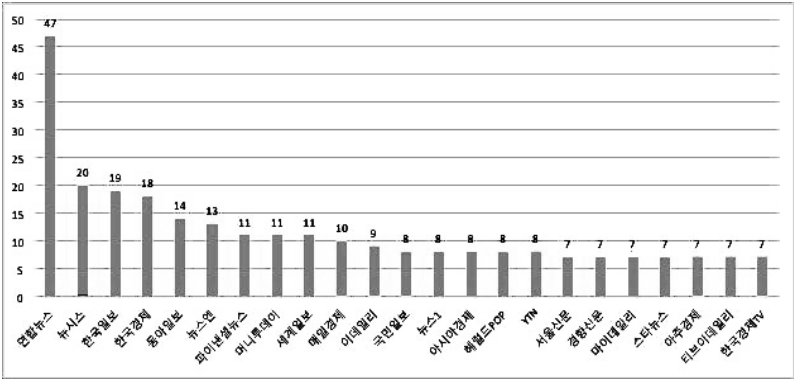
은 자동통역 기계,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통역 시스템 개발을 다룬 기사가 해당되며, ‘영어학습’은 동시통역 기법을 이용한 영어학습을 다룬 경우이고, 그 외에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연도별 기사 빈도 추이를 집계하였다.



<그림 2> 분류 항목별 연도별 빈도 추이

이상의 분류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2009년에는 동시통역사와 결혼하는 연예인 뉴스와 방송인으로도 활약 중인 동시통역사에 관한 뉴스 등 ‘연예·예능·유명인사’ 뉴스(13건)와 ‘서비스’ 관련 뉴스(6건, 2008년은 1건)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기사 빈도가 늘어났다. 2011년에는 네이버의 NHK 방송 한국어 자막 서비스 및 지자체의 택시 통역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서비스’ 관련 기사가 급증하였다(38건). 해당 뉴스 대부분은 ‘네이버, NHK방송 한국어 동시통역 문자 생중계 실시’ 또는 유사 제목으로 게시되어 방송에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음성 동시통역이 아닌 방송 내용을 한국어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통역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천시 택시 ‘동시통역 서비스’ 시행 소식도 동시통역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외국인 대상 외국

어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그 외 ‘연예·예능·유명인사’ 뉴스(12건)로, 연예인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한 동시통역사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회의 통역을 하는 동시통역사의 고유 업무에 관한 내용이 아닌 유명 스포츠 선수의 상대 출연자로서 화려한 직업 프로필을 지닌 면모가 강조되는 등 동시통역 본연의 특성에 중점을 두지 않거나 동시통역이 아닌 업무에 ‘동시통역’이라는 용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2012년 이후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서비스’, ‘연예·예능·유명인사’,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에 힘입어 ‘자동통역 기계·앱·인공지능 개발’ 기사 빈도가 폭증하였으나 정작 동시통역 본연의 업무 및 실무를 하는 동시통역사와 관련된 기사는 그에 비하여 비중이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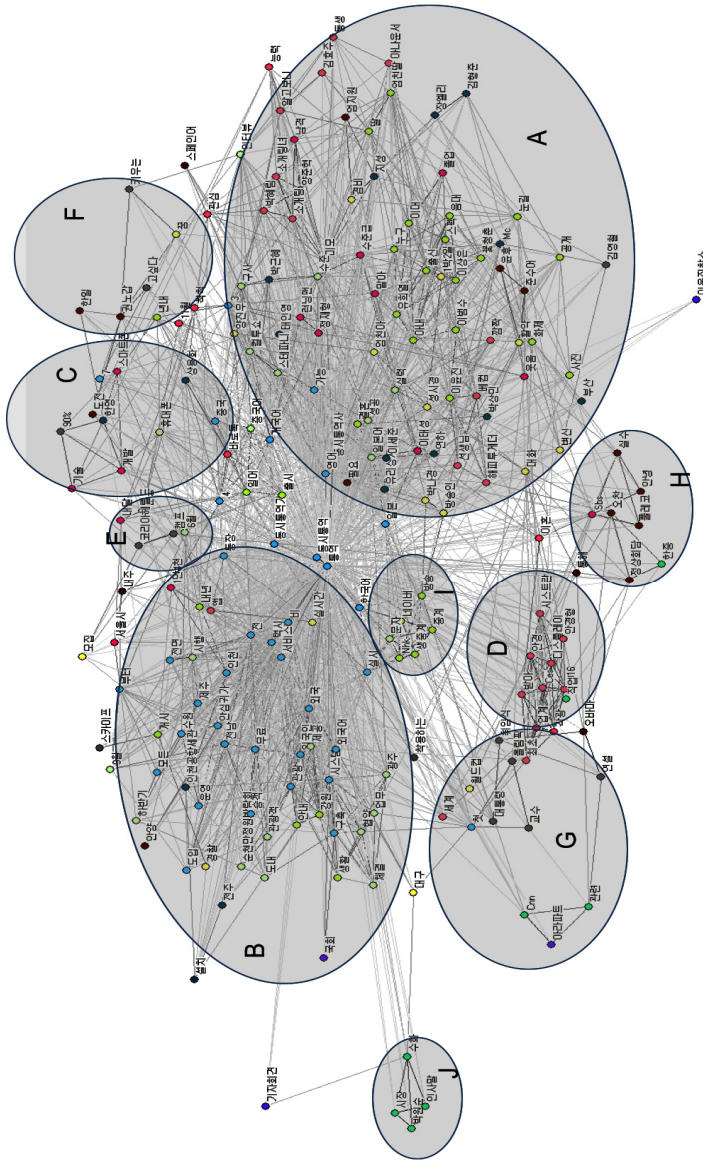


<그림 3> 빈도 기준 상위 언론매체

빈도수 기준 상위 언론사는 <그림 3>과 같다. ‘연합뉴스’는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는데 이는 기사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뉴스통신사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2) 언론보도 의미연결망 분석

동시통역이 언급된 기사 제목에 등장한 어휘들 간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4> 2000-2016.4 의미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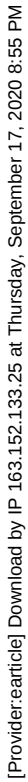
2000년에서 2016년 4월 사이 기사 제목의 의미연결망 분석에서 연예인의 배우자, 예능 출연 통역사, 유명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A 영역을 이루고 있고, 택시 및 공공기관 통역 서비스와 관련된 어휘가 B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스마트폰 및 휴대폰 관련 자동통역 기술 개발에 해당하는 C 영역,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 영역으로까지 확대된 자동통역 기술 개발에 해당하는 D 영역, 영어학습 수단에 해당하는 E 영역, 전망 직업으로서의 동시통역을 다룬 F영역, 정부행사, 국제 스포츠 행사, CNN 생중계 등 국제적인 영역에서 수행한 동시통역을 다룬 G 영역, 정상회담 등 동시통역을 다룬 H 영역, 생방송 문자 통역 서비스를 다룬 I 영역, 수화통역을 다룬 J 영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연예, 예능, 유명인사와 관련되어, 또한 택시 및 공공 영역의 통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시통역’ 혹은 ‘동시통역사’ 어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예, 예능, 유명인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수준’, ‘수준급’, ‘실력’, ‘능력’ 등의 어휘와 연계되어 연예인 및 유명인사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동시통역’이 제목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모’, ‘스펙’, ‘지성’, ‘엄친딸’, ‘엄친아’ 등의 어휘와도 연결되어 ‘동시통역’ 혹은 ‘동시통역사’가 해당 인물의 뛰어난 능력, 조건, 배경 등을 묘사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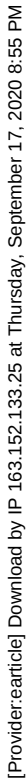
반면, 정작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시통역에 관한 영역은 의미연결망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 ‘정상회담’, ‘CNN’, ‘SBS’ 등의 어휘가 간단한 연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폴레코’, ‘안녕’, ‘실수’ 등 월드컵 조추첨 당시 SBS 생중계를 동시통역한 대학생 통역사의 실수와 관련된 어휘가 부각되어 있다. 사실 대부분의 영역이 동시통역 본연의 의미에 해당하는 어휘와는 거리가 멀다. 나머지 영역도 ‘택시’, ‘서비스’, ‘관광’, ‘안내’ 등 국제회의의 동시통역이 아닌 일반적인 상담·안내 차원의 간단한 통역 서비스, ‘시스템’, ‘기술’, ‘개발’, ‘스마트폰’ 등 자동통역기 개발 관련 어휘로 ‘동시통역’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연결망의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해 <그림 5>와 <그림 6>과 같이 5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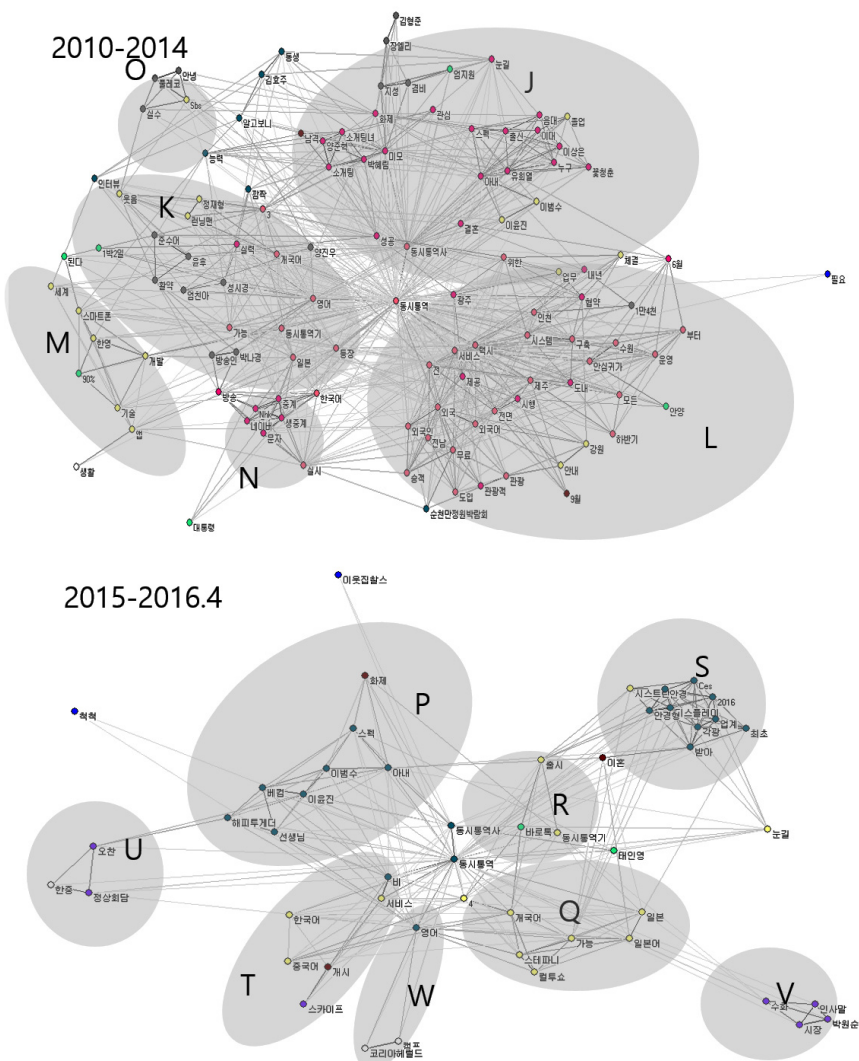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55 PM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55 PM



[Provider:article] Download by IP 163.152.133.25 at Thursday, September 17, 2020 8:55 PM



<그림 6> 5년 단위 의미연결망 추이(2010~2016.4)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의 기사 제목에서는 택시 통역 서비스 관련 어휘 영역(A), 휴대폰 동시통역기 관련 어휘 영역(B), CNN 방송 관련 영역(C)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의미 연결망은 택시 통역 서비스 영역에서 촘촘하다. 2005년에서 2009년은 ‘이세준’, ‘유리상자’, ‘결혼’을 중심으로 연예인의 동시통역사와의 결혼 소식의 의미 연결망(D)이 가장 촘촘하다. 또한 영어 및 중국어 실력 영역(E), 동시통역기 개발 관련 영역(F), 정치인의 동시통역사 도전 소식(G), 국회 및 인천공항 세관 통역 서비스 개시 소식(H) 영역이 분포해 있다. 그러나 정작 동시통역 본연의 의미를 다룬 기사(베이징 올림픽 한국어 동시통역 제공 기사)에 포함되었던 어휘인 ‘첫’, ‘교수’, ‘한국어’ 영역(I)은 세 어휘만이 단순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다른 어휘들과는 유리되어 있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연예인의 능력, 미모 및 조건, 연예인의 배우자인 동시통역사 관련한 어휘 영역(J), 연예인의 외국어 능력을 표현한 영역(K)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택시 서비스 관련 영역도 뚜렷한 영역(L)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자동통역 기술 관련한 영역(M), 방송 문자 통역 서비스 영역(N)도 눈에 띈다. 정작 동시통역 본연의 의미에 해당하는 영역(O)은 SBS의 월드컵 조추첨 당시의 통역 실수를 다룬 영역이 다른 영역의 어휘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좁게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서 2016년 4월까지의 기사 제목의 경우에도 여전히 연예인의 배우자인 동시통역사 관련하여 스펙을 강조하거나 화제성이 부각된 어휘 영역이 뚜렷하다(P). 또한 연예인의 외국어 능력을 부각시킨 영역(Q), 자동통역 기술을 다룬 영역(R, S)과 실제 개시된 자동통역 기술 관련 영역(T)이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촘촘한 의미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동시통역 본연의 의미에 가까운 ‘한중’, ‘정상회담’, ‘오찬’으로 구성된 영역(U)은 해당 영역 내에서만 확실한 연결망이 형성될 뿐 다른 영역의 어휘들과 연결고리가 긴밀하지 못하고 거리를 둔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기사 제목에서 다루고 있는 ‘동시통역’이라는 어휘는 동시통역이나 동시통역사의 전문성, 또는 전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보다는 대부분 연예인 배우자의 화려한 직업 및 능력,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의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본연의 동시통역과는 거리가 먼, 서비스 차원에서 외국어로 제공되는 상담, 안내, 및 통역 서비스를 ‘동시통역’ 서비스로 지칭하여 홍보하는 기사, 그리고 자동통역 기기 및 기술개발 관련한 기사

가 전 기간에 걸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기사내용을 통해 본 동시통역

본 절에서는 제목에 ‘동시통역’이 포함된 기사의 본문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매체에서 ‘동시통역’을 조명하는 관점과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III.2.1 및 III.2.2에서 파악된 분류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연예·예능·유명인사, 공공서비스, 자동통역 기계·앱·인공지능 개발, 영어학습, 동시통역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연예·예능·유명인사

아래 인용한 기사들은 동시통역사와 결혼하거나, 동시통역사를 친척으로 두었거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시통역사와 만남을 갖는 연예인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 (1a) 유리상자 이세준은 2009년 1월1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5년간 사귀어온 8살 연하 동시통역사 강모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세준은 그동안 자신의 열애 사실을 공개해왔다. (뉴스엔, 2008. 10. 01)
- (1b) 영화배우 박상민(37)이 2살 연하의 동시통역사 한나래씨(35)와 웨딩마치를 올렸다. (조이뉴스24, 2007. 11. 09)
- (1c) SS501 김형준의 동거녀이자 ‘엄친딸’인 장엘리가 화제다. (...) 특히 김형준과는 아주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는 사촌지간으로 이날 그는 평소의 친분을 증명이라도 하듯 촬영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신문, 2010. 12. 20)⁹⁾
- (1d) 양준혁의 애인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막내 전현무로부터였다. 전현무는 이날 “준혁이 형이 요즘 너무 외로워한다. 30대 초반의 동시통역사와 소개팅을 해주려고 한다”면서 긴급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 (헤럴드POP, 2011. 12. 12)

위의 기사들에서는 연예인의 배우자, 친인척, 상대 출연자의 직업인 ‘동시

9) 기사제목: 장엘리, ‘지성+미모’ 동시통역사 화제 “김형준과 무슨 사이?”

통역사'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배우자의 직업이 모든 결혼 관련 기사에서 항상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표현도 종종 언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직업인 '동시통역사'로 소개하는 것은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이 가진 화려한 이미지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아래 기사들은 직업 명칭을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인물의 화려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 (1e) 귀여운 외모의 예비신부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다. (동아일보, 2009. 01. 06)
- (1f) 박상민은 한나래씨와 1년여정도 교제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 한나래는 현재 EBS 잉글리쉬 TV에서 방영하는 '월드 뉴스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 행사의 동시통역 및 각종 영어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조이뉴스24, 2007. 11. 09)
- (1g) 지난 19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패션엔(FashionN) '스위트룸' 4회에서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동시통역사 장엘리가 출연해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만한 화려한 일상을 공개했다. [...] 장엘리는 골프와 와인이 기본인 럭셔리한 생활은 물론 '남자 아이돌'들과 함께 지낸다고 밝혀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 진정한 '엄친딸' 장엘리의 연예인 못지않은 드레스룸 공개는 19일 오후1시 패션엔(FashionN) '스위트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문, 2010. 12. 20)
- (1h) 양준혁의 소개팅 상대는 알고보니 빼어난 미모의 동시통역사 박혜림씨. 박혜림(33) 씨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해외 유명 통번역대학원에서 수학한 재원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공식 통역사로 활약한 '평창 유치'의 숨은 주역이다. 거기에 최근에는 케이블 채널 엠넷의 '슈퍼스타K3' 톱1에 들었던 크리스의 통역을 맡아 눈길을 끈 인기인이기도 하다. (헤럴드POP, 2011. 12. 12)
- (1i) 유희열 아내 이상은 씨는 1973년 생으로 유희열 보다 2살 연하로 이화여대 음대를 졸업했고 미국 유학 뒤 동시통역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희열 아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상은 씨의 친정은 미국 LA에 있고 유희열의 어머니는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 오이순 씨로 한국 의생활 문화원 원장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희열 사과, 부인이 엄청난 스펙 가지셨다”, “유희열 사과, 정말 재벌가?”, “유희열 사과, 이대 나온 여자인지 시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2015. 04. 07)

(1j) 이윤진은 7~8세때 부터 아버지 사업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학교를 다녔다. 고려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어학을 수료했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는 춘천 MBC 아나운서로 입사, 2008년에는 OBS 경인 공채 아나운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세계여성포럼, 아시아 경제 공동체 포럼에서 영어통역과 진행을 맡기도 했다. (스포츠조선, 2014. 12. 16)¹⁰⁾

(1k) 방송인이자 통역사로 활동중인 태인영이 화제다. 특히 태인영의 미모가 여배우 못지않게 미인이라는 점에 관심이 뜨겁다. [...] 한편, 태인영은 동시통역사로도 유명해 미모와 실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SBSfunE, 2016. 01. 06)

위의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의 배우자, 친척, 상대 출연자의 화려한 경력을 기술하고 있다. 동시통역사라는 점 외에도 (1e)와 (1h)에서는 정식으로 ‘통역 번역대학원’ 졸업을 명시하였고, (1h), (1i), (1j)에서는 ‘성균관대 법대’, ‘이화여대 음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등 뛰어난 학벌을 강조하였으며, (1f), (1j), (1k)에서는 동시통역과 각종 프로그램 진행자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1g)의 경우에는 화려한 일상을 강조하였고, (1i)의 경우 어머니가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라는 점과 ‘재벌가 딸이라는 의혹’을 함께 언급하며 화려한 집안 배경을 지녔음을 부각시켰다. 여기에 “부인이 엄청난 스펙 가지셨다” 등의 네티즌 반응을 함께 곁들이며 화려한 배경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귀여운 외모’, ‘미모의 동시통역사’,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배우 못지 않게 미인’ 등 외모에 관한 언급도 발견된다.

한편,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동시통역’이 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0) 기사제목: 이범수 아내 이윤진, 화려한 스펙 공개...배킴과 동시 통역까지 ‘헉’

(1l) 배우 양진우가 유창한 영어실력을 뽐냈다. [...] 2010년 말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출연진, 스태프들은 짧지 않은 영어 대사를 NG 없이 구사하는 양진우를 보고 예상치 못한 영어 실력에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원래 대본 상에는 영어로 통역해야 할 대사가 전부 한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양진우는 대본을 받아 직접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엔, 2011. 01. 04)¹¹⁾

(1m) 성시경 영어실력이 화제다. [...] 이날 성시경은 외국인에게 “거기서 뭐하고 있었나?” “‘마녀사냥’이란 TV 쇼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다” “결혼했는지 궁금하다” “만나는 사람 있느냐” 등의 말들을 영어로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대화를 이어나갔다. [...] 특히 성시경은 이날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마녀사냥’ MC들에게 능숙하게 동시통역하는 엘리트다운 모습을 선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뉴테일리, 2013. 12. 21)

(1n) 스테파니가 놀라운 외국어 실력을 뽐냈다. [...] DJ 킬투는 스테파니에게 “일본어도 할 줄 아냐”고 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스테파니는 “동시통역이 되는 건 영어다. 일본어는 인터뷰를 하는 정도”라고 겸손하게 답했다. (텐아시아, 2015. 11. 06)

(1o) 한편 정창욱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셰프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0년 생으로 재일교포 4세다. 하와이 주립대를 중퇴한 후 8년간 한국어-일본어 동시통역가로도 활동했다. 이후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셰프에 도전했다. (아시아경제, 2015. 07. 27)

위의 기사의 내용과 맥락을 보면 연예인들이 방송 중에 간단하지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거나 과거 통역사 경험이 있음을 언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 모두 동시통역과는 거리가 멀다. (1l)은 대본을 받아 사전에 번역을 한 경우이고, (1m)은 간단한 대화 상황에서 순차로 통역한 경우에 해당한다. (1n)은 해당 인물이 정식으로 통역 교육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과 기사의 맥락을 고려하면, 일본어는 통역을 못하지만 영어는 간단한 통역이 가능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1o)도 마찬가지로의 경우로, 관련 기사에서 해당 인물이 “자격증이 필요한 통역사는 아니었고, 방송 관련 일어 통역사였다”(MBN 2015. 08. 19)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동시통역사 이력이

11) 기사제목: ‘역전’ 양진우 동시통역 영어 완벽구사, 알고보니 호주 유학과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예인과 유명인사가 외국어 회화가 유창하거나 간단한 통역이 가능할 때 언론 기사에서는 이를 과장하여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연예인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접근이겠지만 ‘동시통역’이라는 전문능력에 해당하는 용어가 광의의 언어 실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2) 공공서비스

‘동시통역’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은 공공서비스 제공 관련 기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a) 택시 동시통역시스템은 외국인이 탑승하면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통해 (주)피커폰의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요원과 연결한 뒤 기사, 승객, 통역원이 말을 주고 받으며 외국인의 행선지와 요금 등을 자국어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경제, 2000. 05. 24)
- (2b)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 여행자의 입출국시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시통역시스템(일명 피커폰)’을 입국장뿐만 아니라 출국장에도 확대 설치해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동시통역시스템은 통역전화기를 통하여 ‘여행자-통역인-세관직원’의 3자간에 의사소통 하는 방식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에 대해 동시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9. 04. 30)
- (2c) NHN은 지난 17일부터 일본 공영 방송인 NHK의 방송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동시통역 문자 생중계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 로그인 화면 하단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NHK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한글 자막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경제, 2011. 03. 18)
- (2d) 이번 동시통역시스템은 전화를 이용해 지역번호나 국번 없이 ‘1366(이동전화는 지역번호 포함)’을 누르면 영어·러시아어 전문통역사와 연결돼 통역사, 외국인 피해여성, 상담원 3자간 동시에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외국인 피해여성은 직접상담을 통해 전문상담서비스 및 보호시설 입소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전자신문, 2002. 10. 21)

위의 사례에서 보듯 택시·공항 이용객과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소위 ‘동시통역’ 시스템은 외국인 여행자나 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 여성에게 의사소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위급한 경우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지칭하는 ‘동시통역’이란 국제 회의에서 필요로 하는 ‘동시통역’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모두 전화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발화를 하는 순간에 통역을 동시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NHN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엄밀한 의미의 음성 동시통역이 아닌 문자 생중계 방식이다. 따라서 위의 사례 모두 용어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자동통역 기계·앱·인공지능 개발

언론에서는 자동통역 기술에 관한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다. 최근 구글, 스카이프, IBM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기계통번역 기술에 투자를 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자동통역에 관한 기사는 2000년부터 꾸준히 보도되어 왔고 그만큼 언론의 자동통역 혹은 기계통역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3a) 세계 2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IBM은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실시간으로 자동 번역하고 다른 언어로 e-메일을 보내는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 2001. 01. 09)¹²⁾
- (3b) 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 언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휴대용 동시 통역기가 나왔다. 통역 및 번역 소프트웨어(SW)개발 전문 업체인 창신소프트(대표 지창진 www.cssoft.co.kr)는 한국어를 일어 영어 중국어로 또는 상대국 언어를 한국어로 동시 통역 및 번역하는 휴대용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머니투데이, 2002. 01. 23)
- (3c) 외국인과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초고속 통역SW인 ‘렉처 트랜슬레이션(강연번역)’도 등장했다. 이 제품은 스페인어와 영어, 프랑스어를 몇 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통역해 준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거의 전문통역사를 옆에 두고 대화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 알렉스 와이벨 교수는 이날 선보인 제품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부분 극복한데다 수년

12) 기사제목: “IBM, 웹상의 동시통역사로”

내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 향후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전자신문, 2005. 10. 31)¹³⁾

- (3d) 한국어와 영어 양 방향 통역률이 9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형 한·영 자동통역 기술’이 개발됐다. 2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여행 상황에서 통역률이 8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 사용자의 음성인식 오류를 수정하면 90% 이상의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이투데이, 2011. 12. 22)¹⁴⁾

위 기사들에서는 자동통역 기술 개발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자동통역 기술에 뛰어든 기업은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 및 연구 기관도 있는데, 기술개발 결과가 매우 성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3c)에서는 전문통역사급의 통역이 곧 상용화가 된다고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자동통역 기술이 완벽한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것을 보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3d)의 경우에는 80%, 90% 등 매우 높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기술개발 결과가 성공적임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통역률의 평가 기준이 언급되지 않은 채 해당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 (3e)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28일(현지시간) 산하에 둔 인터넷 전화 서비스 ‘스카이프(Skype)’에 동시통역기능을 추가해 공개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대방의 말이 각기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동적으로 번역돼 음성과 문자로 변환된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언어 장벽이 사라지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2014. 05. 29)

- (3f) 현재 구글은 90여개의 언어로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차 성능의 향상으로 보다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제공 중인 구글 번역서비스가 어순이 뒤범벅되는가 하면 의미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업데이트가 이뤄진다고 얼마나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단지 해외여행을 하거나 간단한 회의 시

13) 기사제목: “언어장벽 무너질 날 머잖았다”...새 동시통역기 대거 공개

14) 기사제목: ETRI, 한영 동시통역기술 개발...통역률 90%

상대방의 언어로 의견이나 질문을 표시하거나 상대방의 응답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일보, 2015. 01. 12)¹⁵⁾

- (3g) 알파고 등장 이전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침투해올 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명확해 졌다. 알파고 정도의 학습능력이라면 당장 1~2년 내에 많은 분야에서 실감나는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동시통역 부문이다. 지금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등 스카이프를 자유롭게 소통한다. 하지만 동양언어와 서양언어 사이의 동시통역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젠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한국어도 영어와 스마트폰으로 동시통역되는 시기가 1년 정도 안에 가능해 진다고 본다. (머니투데이, 2016. 03. 06)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상황이 많이 변하였다. MS의 스카이프는 통역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고 구글은 대대적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3f)에 기술되어 있듯, 한국어와 영어 간 구글 번역은 어순 차이 등의 이유로 부정확한 번역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에서 연이어 우승하면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g)에서 이준정 서울대 명예교수는 그간 통역이 원활하지 않았던 동양어와 서양어 간 기계 동시통역도 1년 내 가능하다고 전망할 정도로 자동 동시통역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4) 영어학습

‘동시통역’은 이제 효과적인 영어학습의 도구로서 언급되고 있다.

- (4a)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뿐이다. 그래서 영어의 최고영역이라는 동시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2명의 영어달인(?)을 만났다. 통역을 담당하고, 중요한 국제적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이들.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 할

15) 기사제목: 구글 ‘음성→문자 동시통역’, 외국어 공포 탈출 가능?

수 있는 걸까. (대전일보, 2008. 04. 04)

- (4b) 중종등 영어전문 교육기업인 토피아에듀케이션(www.topia.co.kr)은 중학생용 교육 프로그램에 동시통역사들이 단기간에 영어실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습방법을 적용,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 영어를 문장단위로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직독직해(Sight Translation)와 들리는 지문을 2~3초 후에 따라서 말하며 억양, 강세 훈련을 받는 따라말하기(Shadowing)등 동시통역사들이 주로 훈련하는 교수법을 고스란히 적용했다. (이데일리, 2009. 08. 13)
- (4c) 동시통역사들과 함께 웨도잉, 나레이션, 써머리 등 동시통역의 핵심 수업들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환경, 경제위기, 핵 문제, 한류문화 등 국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스피치대회를 진행하며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헤럴드대표이사상, 코리아헤럴드 편집국장상 등을 수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헤럴드경제, 2015. 08. 03)
- (4d) 키즈람스영어는 론칭 3년 만에 500여개 유아 교육기관에 도입된 브랜드다. 특히 특허받은 멀티미디어 어학학습 시스템으로 짧은 시간에 영어와 모국어를 동일한 사고 체계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유아 교육기관의 4~7세 아이들 80% 이상이 1년에 약 300문장을 동시통역한다”며 “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모국어 습득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2015. 01. 08)

영어학습 관련하여서는 (4a)에서 보듯 2008년만 해도 동시통역사에게 영어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자는 취지에서 ‘동시통역’이 언급되었다면, 이후에는 영어교육 업체들이 동시통역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수법을 중학생과 심지어는 유치원생에게 응용해서 일종의 영어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수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동시통역

본연의 의미의 동시통역을 다룬 기사들은 2000년부터 꾸준히 보도되어 왔다.

- (5a) 국제회의가 열리는 행사장 한켠엔 으레 조그만 부스가 눈에 띈다. 투

명한 유리창 너머 부스 속에선 헤드폰을 쓴 동시통역사들이 마이크에 대고 연신 말을 쏟아낸다. [...] 컴퓨터 영화 등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통역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통역사의 세계=일본어 동시통역사 안영희(34)씨. 올해로 경력 11년째인 안 씨는 베테랑 동시통역사로 불리지만 통역일을 할 때는 늘 시험을 치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낀다. (한국경제, 2000. 10. 29)

- (5b) 이같이 외국방송과 안방 시청자 사이를 연결하는 동시통역사 몸값이 최근 방송사들이 이라크 전쟁 소식을 경쟁적으로 전하면서 ‘금값’이 됐다. 이라크 전쟁 발발 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동시통역사는 여러 방송사와 계약하고 각종 전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덕분에 하루에 최고 150만원 가까이 벌고 있다는 것. (MBN, 2003. 04. 06)

위 사례에서 보듯, ‘동시통역’이 일반 대중에게 낯선 직업이라고 간주해서인지 2000년대 초반의 동시통역 및 동시통역사 관련 기사는 동시통역을 하고 있는 동시통역사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동시통역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통역사들이 긴장을 많이 한다는 점과 중요한 현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소득금 액까지 명시하며 고소득 직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5c) 한국과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는 빠짐없이 가운데에 앉아 정상간의 대 화를 잇는 언어 가교역을 해온 최정화(崔楨禾.⁴⁷) 한국 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의 한국사회 현주소에 대한 진단이다. 경기여고와 한국외대를 수석졸업하고 파리 제3대학 통역번역대학원(ESIT)에 유학해 1981년 한국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가 됐고, 1986년 아시아 최초의 통역번역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 교수는 25일 저녁 6시 서울 서대문구 합동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한국어성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정부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는다. (연합뉴스, 2003. 09. 25)¹⁶⁾

또한 위의 사례와 같이 동시통역사라는 인물에 초점을 둔 기사도 눈에 띈다. 기사에 소개되는 동시통역사는 대체로 화려한 경력과 학력을 지닌 것으

16) 기사제목: <연합초대석> 동시통역사 최정화 교수

로 기술되어 직업의 전문성과 화려함이 강조된다.

- (5d) 이달 말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 동시 통역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외교통상부는 16일 두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동시통역 시설이 갖춰진 서울도림동 외교부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기로 했다. 동시 통역사들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활동했던 ‘특 A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2006. 07. 17)

또한 위의 경우처럼 보통 순차통역으로 진행해왔던 공동 기자회견을 동시통역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APEC 회의에서도 활동했던 ‘특 A급’ 통역사를 섭외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여 중요도가 높은 회의에 요구되는 동시통역의 전문성이 강조되었다.

- (5e) “우리 국력이 그만큼 신장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베이징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 기자회견장의 한국어 동시통역사인 이연향(51)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어가 처음으로 올림픽 공식 통역언어로 채택된데 대해 이 같이 소식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한-영 동시통역 경력 약 20년의 베테랑으로 [...] 이번 대회 한국어 동시 통역사들은 10~20년 경력의 베테랑들임에도 이번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약 1년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위촉을 받은 이후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연합뉴스, 2008. 08. 04)

- (5f) 외교부 관계자는 5일 “한국어가 세계 3대 언어로 꼽히는 스페인어나 유엔 공용어인 러시아어를 제치고 ASEM 회의에서 2차레나 동시통역 언어로 채택됐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1. 06. 05)

올림픽과 ASEM 등 국제행사의 공식 동시통역 언어에 포함되는 것은 소통의 목적을 넘어서서 해당 국가 언어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사례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시통역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5g) 특히 SBS 조추침 방송을 통해 동시 통역사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귀여운 실수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포르투갈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알려진 이 통역사는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 폴레코가 등장하자 “폴레코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이어 호나우두의 등장에는 “축구공 호나우두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웃음을 선사했다. 이 같은 멘트에 배성재 아나운서는 “우리 통역사가 참 귀엽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MBN, 2013. 12. 07)

그러나 비전문가가 수행한 동시통역에 대한 기사도 눈에 띈다. 통역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대학생이 방송 생중계 동시통역을 하면서 비전문적인 통역으로 실수를 연달아 한 내용이다. 그러나 동시통역의 전문성을 강조하던 매체들은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다’라며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례적이다.

(5h) 사상 처음으로 동시통역 회담이 확정되자 순차통역에 익숙한 외교부 소속의 통역사들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순차통역을 할 때는 자신의 발언을 통역하는 시간에 다음 발언을 미리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통역에는 바로 물어보고 바로 답해야하는 순발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시간 절약 차원에서 동시통역을 하기로 했지만 양국 정상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N, 2014. 11. 10)

(5i) 특히 오찬회담은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동시통역’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순차통역’ 때보다 회담이 빨리 진행됐고, 그 결과 실제 대화 시간도 2배가량 늘었다. (경향신문, 2015. 10. 17)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동시통역을 도입하게 되면서 겪는 변화가 기사를 통해 확인이 된다. 전통적으로 순차통역으로 진행해왔던 정상회담을 동시통역으로 실시하게 된 계기는 ‘시간 절감’ 효과 때문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특히 (5h) 기사에서는 이를 둘러싼 통역사와 양국 정상의 부담감이 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1년 후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는 ‘시간 절감’ 효과라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간 절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를 뒤집어서 ‘실제 대화 시간이 2배가량 늘었다’는 표현이 사

용된 점이 흥미롭다.

- (5j) NHK는 이날 오전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됐다는 내용을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발언 등을 속속 보도했다. 특히 오후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임시 방송을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전격 단행했다고 발표하는 장면은 ‘동시통역’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기도 했다. (아시아투데이, 2016. 01. 06)

위 기사를 통해 동시통역은 중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문서비스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IV. 결론

지금까지 ‘동시통역’을 다룬 언론 보도 분석 결과를 소개하였다. 기사 제목 기준 빈도 분석 및 의미연결망 분석, 기사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동시통역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를 강조한 기사는 지금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으나, ‘동시통역’ 용어가 기사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용어가 오용된 기사의 보도 빈도가 엄격한 의미로 사용된 보도 빈도보다 급증함에 따라 전문적 영역인 동시통역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오용된 기사들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전문 동시통역을 수행하는 국제회의통역사가 아닌 통역사 및 연예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동시통역’이 가능하다고거나 ‘동시통역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간단한 회화 능력도 종종 ‘동시통역’ 능력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이는 단순히 기사 본문 속에 눈에 띄지 않게 기술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가장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기사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해당 기사에는 외모에 대한 언급이 동반되는 경우가 잦아서 동시통역사의 전문정보다는 화려한 배경과 외모만 부각되는 경

향이 짙었다. 또한 동시통역 서비스가 아닌 간단한 관광 안내, 상담, 길안내 서비스에 제공되는 통역도 ‘동시통역’ 서비스로 무차별적으로 표현되었다. 더욱이 해당 기사들은 공공 서비스 홍보 차원에서 여러 매체에서 비슷한 제목과 본문으로 보도되어 기사 빈도 또한 매우 높았다. 한편, 꾸준히 보도되었던 기계통역 혹은 자동통역 기계 기사는 알파고 대국 이후로 더욱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도되기 시작하여 동시통역은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지적작업이라는 인식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 실력이 부족하던 시절 중요한 국가 행사 및 국제 행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세계를 누비던 초창기 동시통역사는 분명 화려하고 전망 받는 직업이었다. 그래서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싶은 대상에 ‘동시통역’, ‘동시통역사’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순차통역’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목 필드에서 동기간 기준으로 검색하면 단 10건만이 검색되는 것과 대비되는 면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직업의 전문성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용어가 사용된다면 아무리 본질적으로 ‘동시통역’이 전문적인 것이라 해도 서서히 사회의 인식이 이와 떨어져 직업의 안정성과 위상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언론 보도에 드러난 ‘동시통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시통역’이 기사 속에서 주요 테마로 다뤄지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 기사에 반영된 인식만을 다루었을 뿐 언론 보도의 프레임 관점의 연구로 발전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언론이 동시통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미은. (2003, 12월). 『신문사 여성전문인력의 현황과 과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여성전문인력,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 김은주, 박정배. (2010). 「뉴스통신사 선거보도 뉴스프레임 변동 연구: 연합 뉴스의 대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90-125.
- 박한우, 레이테스트로프, L. (2004). 「한국어의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6(5), 1377-1387.
- 손승혜, 황하성, 장운재. (2011). 「한국 언론의 교육보도 특성과 뉴스 가치 분석」. 『미디어와 교육』, 1(1), 115-145.
- 이소희. (2014). 「한영 동시통역에서 분절 및 전환전략의 활용: 명사구의 동사화 사례분석을 통한 고찰」. 『통역과 번역』, 16(2), 111-129.
- 이용훈. (2006). 「언론보도를 통해 본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 분석: ‘기적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81-288.
- 이정순. (2016). 「한-중 동시통역 기법 연구: 반복, 단순화, 전환 기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131-156.
- 임양준. (2013). 「한국 신문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사설과 칼럼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2(1), 251-285.
- 최수진. (2014). 「한류에 대한 미·중 언론보도 프레임 및 정서적 톤 분석: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2), 505-532.
- 최은아. (2014). 「영한 동시통역의 운율과 청자 이해도 및 품질평가에 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6(2), 233-262.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4). 『신문 속의 여성소외: 5개 일간지의 여성관련 기사 분석 보고서』. 여성과 언론 공개토론회 발표논문.
- 허명숙. (2007). 「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7), 5-45.
- AIIC. (2002). *Workload Study*. Genva: AIIC. Retrieved May 5, 2016, from <http://www.aiic.net/ViewPage.cfm/article467>.
- Angelelli, C. V. (2004). *Revisiting the Interpreter's Role: A Study of Conference, Court, and Medical Interpreters in Canada, Mexico,*

- and the United Stat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Cooper, C. L., Davies, R., & Tung, R. L. (1982). Interpreting stress: Sources of job stress among conference interpreters. *Multilingua*, 1(2), 97-107.
- Entman, Robert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atan, D. (2009). Occupation or profession: A survey of the translators' world.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2), 187-209.
- Lee, J. (2014). Explication and impication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6(1), 105-128.
- Lee, J. (2016). Exploring reasons for pauses in consecutive interpret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8(1), 157-183.
- Parsons, H. M. (1978). Human factors approach to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D. Gerver, & H. W. Sinaiko (Eds.), *Language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pp. 315-321). New York: Plenum Press.
- Pöchhacker, F.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 Pöchhacker, F. (2009). Conference interpreting: Surveying the professi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2), 172-186.
- Setton, R. & Liangliang, A. G. (2009). Attitudes to role, status and professional identity in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with Chinese in Shanghai and Taipei.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2), 210-238.
- Vlieger, E., & Leydesdorff, L. (2011). Content analysis and the measurement of meaning: The visualization of frames in

collections of messages. *The Public Journal of Semiotics*, III(1), 28-50.

Zwischenberger, C. (2009). Conference interpreters and their self-representation: A worldwide web-based survey.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4(2), 239-253.

<인터넷 자료>

김도형. (2015. 6. 5). ‘나 혼자 산다’ 예정화 “원래는 영어 동시 통역사”. 스포츠서울.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223684>

김익태. (2002. 2. 4). [금융] 공무원, 대학생 희망직업-배우자감 “1위”. 머니투데이.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0138514>

매일경제. (2000. 10. 17). [ASEM 2000] 통역. 경호 사상최대 회의 종이 없이 진행. 매일경제.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0057790>

박상익. (2016. 3. 14). AI 신드롬 속 직업의 미래. 한국경제.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31440121>

부형권. (2007. 11. 28). 첫 외국인CMO 연착륙 위해 LG전자, 동시통역사 배치. 동아일보.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news.donga.com/3/all/20071128/8516732/1>

이경희. (2007. 11. 25). [이사람 이직업] 동시통역사 박성주씨. 세계일보.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7/04/12/20070412001884.html>

Mitgang, H. (1946. 10. 20). Da, Oui, Si, Shih, Ye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timesmachine.nytimes.com/timesmachine/1946/10/20/121028405.html?pageNumber=159>

The New York Times. (1946. 8. 10). Quicker translation to be tested by U. N.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May 1, 2016, from

<http://timesmachine.nytimes.com/timesmachine/1946/08/10/91621523.html>

이름: 허지운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우편번호/주소: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huhjiun@ewha.ac.kr

논문투고일: 2016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25일